

한 가지 간증 겸 소식을 전합니다. 지난 3 월 사우디를 갔다 와서 레바논 주재 사우디 대사관과 비자 업체에 가서 시리안들의 워킹 비자가 나오는지 물어봤어요. 그런데 업체에서는 시리안들에게 어떻게 워킹 비자가 나오겠냐는 듯 무시하는 듯하며 아직 다메섹에 사우디 대사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. 같이 간 마즈드 때문에 티는 내지 않았지만 낙심이 되었습니다. "그래, 누가 시리안들에게 일하는 비자를 주겠어. 레바논에서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" 속으로 생각했지만 마즈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대요. "예수님이 문을 열 거야. 기다리자"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. 그런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. 사우디 정부가 단지 시리안들에게만 방문 비자로 일할 수 있고 3 개월마다 갱신하되 사우디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자를 주겠다고. 레바니스들도 워킹 비자가 어렵다는데. 오직 시리안들에게만 가능하다고. 이걸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. 누가 시리안을 환영하겠냐 했는데 사우디가 아니, 주님이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. 기도에 감사드립니다.